'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익산시,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계 구축… 감염확산 방지
고위험시설 집중 관리… 미이행 시설 고발 등 강력 대응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수칙과 세부 방역지침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익산역에서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협의회와 함께 이를 홍보하는 캠페인과 가두행진을 펼치며 동참을 호소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개인방역 5대 수칙은 아프면 3-4일간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30초 손씻기와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소독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등이다.

이와 함께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응한다. 일반음식점과 목욕탕 등 2천500여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해 배포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학생들의 등교를 대비해 학교, 보육시설 등과 합동 대응팀을 구성했다. 시는 학교 기관별로 보건소 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유증상자 발견 시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62곳에 대해서도 오는 26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익산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야간시간에 집합금지 명령 이행,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는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으로 자칫 방심하는 순간 지역사회 확산우려가 크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지역 기업인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경제활력 되찾기 민관 상생해법 모색

익산시, 지역 기업인 간담회

익산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지역 기업인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헌율 시장의 주재로 익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장을 포함한 자동차, 바이오, 섬유, 의료, 식품 등 각 분야 기업 대표들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ECO융합섬유연구원장을 비롯한 익산상공회의소,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인사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기회삼아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기업과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시는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발표된 경영안정자금과 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등을 안내했다.

특히 2억원 이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최대 4억원으로 확대하고 평균 3%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과 최대 4억원에 대한 중소기업 융자금 보증료 지원 내용을 비롯해 자동차 대체부품 사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책을 설명하며 호응을 이끌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현장에서 느낀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제안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2020년 융합SW아카데미 온라인 특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SW중심대학사업단 융합SW교육원은 최근 융합SW아카데미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SW특강은 지난해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10차례의 특강이 진행된데 이어 올해는 AI를 중심으로 총 10회의 특강이 마련됐다.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데이터 분석기반 사회적 기업으로서 논문통계,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프로젝트, 히든스쿨 운영 및 분석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 ㈜히든그레이스 김성은 대표의 데이터분석 강의로 이루어졌다.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SW중심대학사업단 융합SW교육원은 최근 융합SW아카데미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특히 데이터분석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대주제 아래 빅데이터와 예측분석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강의 응용사례 및 산업별 예측분석을 비롯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관심을 끌었다.

한편, 특강에 앞서 2일간 진행된 온라인 특강 참여자 모집은 빠르게 100명을 넘어서 조기마감 된 가운데 SW중심대학사업단은 앞으로 원활한 온라인 특강을 위해 서버 증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1차 특강에 이어 18일부터 23일까지 마인크래프트 코딩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기프트카드 · 지역화폐 22일까지 온라인접수

익산시가 지난 18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프트카드와 지역화폐(다e로움)충전에 대한 것으로 앞서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오직 익산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온라인 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에서 오는 22일까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간단한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친다. 기프트카드는 오는 26일 이후 주소지 농협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多e로움)는 지급 준비 상황 알림 후 충전 될 예정이다.

현재 익산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12만7,002세대다.

시는 지난 4일 취약 계층 약 2만 4천세대에 현금 지급을 마쳤고, 18일 기준 약 5만 세대가 신용·체크 카드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체크카드 신청 인원을 제외한다면 약 5만 세대가 기프트카드 또는 지역화폐 충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며 5부제로 운영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재난지원금 신청 때 제증명 수수료 면제

군산시가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이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신분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 마감 시한까지 관련공부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민원창구와 무인발급기에서 모두 면제가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경비 부담을 덜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시민 개인정보 보호

군산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군산시가 앞장선다.

군산시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고 나섰다.

군산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생성, 기록해 1년이상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 유,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또 매월 1회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되고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응체계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생활속 거리두기' 이벤트

군산시가 생활 속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일상에서의 활동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홍보하기 위해 공식 페이스북에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속 거리두기'의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이벤트는 외식할 때 한 방향으로 나란히 앉기, 체육시설 이용할 때 기구 한 칸씩 띄우고 이용하기 등 외출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사례와 함께 인증사진 또는 인증영상을 페이스북 댓글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산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오는 6월 5일에 발표한다. 시는 참여자 중 총 50명을 추첨해 군산사랑상품권 1만원을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